

# “함께 일하실 분 찾습니다”… 보험업계, 하반기 채용문 활짝

현대해상 28일 메타버스 상담회  
KB손보 내달 5일까지 신입 공채  
교보생명 예년 수준 채용 예정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됐던 보험업계 채용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 이미 상반기 채용을 마무리 지은데 이어 하반기 채용까지 적극 나서면서다. 특히 이 전보다 채용 규모를 확대하거나 적극적인 채용 설명회 개최도 두드러지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오는 10월 4일까지 '2022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접수를 받는다. ▲점포영업관리 ▲자동차보험손해사정 ▲경영지원 ▲보험계리·수리 ▲정보통신(IT) ▲통계·데이터분석 ▲자산운용 총 7개 직무를 모집한다.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에 걸쳐 '2022 메타버스 채용상담회'도 개최한다. 지원자들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메타버스 채용상담회에 참여할 수 있다.

KB손해보험도 오는 10월 5일까지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KB손해보험은 내달 5일까지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KB손해보험

특히 KB손보는 전(全) 직무 보험·금융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공인회계사(CPA), 국제재무분석사(CFA), 미국공인 손해보험 언더라이터(CPCU), 데이터분석전문가(ADSP), SQL개발자(SQLD) 등 각 직무별 자격 보유 시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SGI서울보증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 받았다. ▲디지털 ▲금융일반 ▲전문자격증 ▲지방인재 등 4개 계열에서 총 42명 규모를 채용한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채용에서는 올해 상반기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도 삼성화재도 지난 14일까지 하반기 3급 신입사원 지원서를 접수 받은 바 있다. 삼성생명 모집 직군은 ▲영업마케팅직 ▲상품계리직 ▲자산운용직 ▲디지털금융직 ▲보험지원직 ▲경영지원직 등이다. 삼성화재는 ▲영업관리 ▲손해사정 ▲자산운용 ▲상품개발·계리 ▲디지털금융 등에서 신입직원을 채용한다.

교보생명은 상반기에 총 120명 규모의 신입 공채를 마무리했다. 올해 상반기



현대해상은 내달 4일까지 '2022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접수를 받는다. /현대해상

기 신입사원 116명을 채용하고 약 3개월간의 일정으로 업무 현장과 연수원 등에서 수습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채용에서는 IT 부문 지원자의 직무 역량 중심 채용을 위해 금융권에서 흔치 않은 코딩테스트 기회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선발된 직원들은 3개월간의 수습 과정을 밟은 뒤 오는 10월 현업부서에 배치돼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한다.

교보생명은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백지연 기자 wldu0248@metroseoul.co.kr

## 보험 브리핑

### 삼성화재 장기 펫보험 '위풍당당' 선포

삼성화재는 반려견을 위한 장기 펫보험 신상품 '위풍당당'을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품은 반려견의 의료비, 수술비, 배상책임 및 사망위로금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반려견 담보는 생후 61일부터 만 1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3년 또는 5년 주기의 갱신을 통해 최대 2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위풍당당'은 반려견 외에도 반려인의 위험도 함께 보장하는 것도 특징이다. 반려인의 상해고도후유장해 보장은 기본이며 상해수술비,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비 등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 동양생명 소아암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동양생명이 지난 2012년부터 소아암 완치자들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동양생명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함께 '2022 소아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동양생명은 이번 캠페인을 위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80% 이상 완치가 가능한 소아암'이라는 주제의 영상을 한편 제작했다. 약 5분가량의 이 영상은 연극 관람을 위해 극장에 모인 관객들에게 소아암 환자의 이야기를 서프라이즈 형식으로 보여주는 내용으로 감동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 푸르덴셜생명보험-KB생명보험 임직원 '원라이프데이' 행사

푸르덴셜생명보험과 KB생명보험이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은 내년 통합 생보사인 'KB라이프생명' 출범을 100일 앞두고 양사 임직원 400여 명이 모여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원라이프데이(One Life Day)'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일 서울 고척 스퀘어 이음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 프로야구경기에서 진행했다.

### 신한라이프 '퍼플콘서트 인 서울' 개최

신한라이프가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이어간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20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우수고객 약 1000여 명을 초청해 '퍼플콘서트 인(in) 서울'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한라이프가 통합 1주년을 기념하면서 우수고객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연은 가을 정취에 어울리는 정통 클래식과 대중적인 뮤지컬 갈라콘서트로 구성했다. /백지연 기자

## 13년째 제자리 걸음… “전산화로 다수 편익 도모해야”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與 보험산업 규제 개선 긍정적 언급  
업계 “절차 복잡… 소비자에도 피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두고 보험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험산업 규제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나서면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도 13년째 진전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실손보험이란 보험 가입자가 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실비로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전체 국민의 75%인 3900만명 이상이 가입하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보험업계 현안 간담회'. /생명보험협회

불리고 있다.

2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 및 금융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보험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됐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한 국민 다수의 편익 제고,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금 누수 차단 및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역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시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무려 78.6%에 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보험사 입장에서라도 보험금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복잡한 절차로 이를 받아 가지 못하는 건 아쉬운 일”이라며 “이번엔 진짜 청구 간소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 KB국민은행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나서

KB국민은행은 사회 소외계층 지원 및 ESG 경영을 실천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비 기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KB국민은행은 'One KB 사업자동장' 신규 시 1건당 2000원의 기부금을 적립해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한다. 기부금은 결식아동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전국 50여개의 '착한 식당'에 결식아동 대상 급식비를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 금융당국, 코로나 대출만기 재연장 가닥… 3년 차등화 방침

“내주중 최종방안 발표할 예정”

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재연장할 전망이다. 원리금 상환유예는 1년, 만기연장은 최대 3년까지 차등화해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여신관련 담당자를 소집해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설명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금리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코로나19 대출 상환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만큼 1차례 더 재연장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통해 지원받고 있는 대출잔액은 총 133조4000억원(70만4000건)으로 만기연장이 116조6000억원, 원금상환유예 11조7000억원, 이자상환유예 5조원 등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전처럼 일괄적으로 재연장하지 않고, 차주에 따라 만기연장은 최대 3년, 원리금 상환유예는 1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대출만기 연장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는 2023년 9월 30일까지 늘어

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연장된 기간동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 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된다.

채무조정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경우 '새출발자금', 중소기업의 경우 '신속금융지원'을 운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금융권 또한 어려움을 알고있기 때문에 금융권과의 협력이 마무리 되는대로 내주중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